

전문성 강화·실속 챙긴 가성비로 차별화

르포 | 창고형 할인점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가보니

“드디어 광주에 창고형 매장이 생긴다 나... 더 이상 대전으로 원정다니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기대가 커요.”

생필품과 신선식품 등을 대용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일명 ‘대전 원정대’를 자처한다는 직장인 유 모씨(42)는 광주에도 창고형 할인점이 생긴다는 소식

달리 도심 한 가운데 위치했다. 주거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자리잡으며 접근성을 높였다. 지상 6층, 영업면적 1만 3,100㎡(3,969평) 규모로 상품 재고를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쇼핑하는 매대 위에 진열했다. 맥스는 30~40대를 주요 타깃으로 전형적인 창고



맥스 상무점은 와인전문매장 보틀병커, 가전-리빙 브랜드를 콜라보한 토탈리빙매장, 직영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 품미소 등 전문점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해외소싱 등 단독상품을 통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소품종 대량판매 3천여개 품목
로컬 제품 확대·가치소비 집중
가전-리빙 콜라보 매장 3월 오픈
와인 전문매장 보틀병커도 입점

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전남지역 최초 창고형 할인점 ‘롯데마트 맥스(Maxx)’가 새단장을 마치고 서구 치평동에 문을 열었다. 오픈을 하루 앞둔 20일 낮 12시부터 4시간 가량 프리오픈을 진행했다.

맥스는 기존 롯데마트와 달리 진한 초록색 외관으로 새단장한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롯데마트는 기존 창고형 할인점인 빅(VIC)마켓과 롯데마트 모두 빨간색 외관을 고집했었다.

치평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 모씨(27)는 “기존에 같은 자리에 있던 롯데마트 상무점은 빨간색 외관이었는데, 대조적인 초록색으로 바뀌니까 낯설다”며 “건물 전체가 진한 초록색이어서 거대한 건물이 들어선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맥스 상무점은 기존의 창고형 할인점과

형 할인점에서 벗어나 맥스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 다양한 차별점을 구상했다.

기존 롯데마트 매장과 다르게 맥스 매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을 대용량으로 만나볼 수 있다. 맥스는 필요한 상품을 집중 소비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소품종 대량판매’ 전략에 초점을 뒀다.

약 2만여개에 달하는 대형마트 대비 품목별 1~2개 대표 상품만으로 구성을 갖춰 판매 품목수(SKU)는 3,000여개 정도다. 다만 기존 창고형 할인점에서 선보였던 ‘무조건 크고 많은’ 대용량이 아닌 3~4인 소규모 가족이 넉넉하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대용량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실속성 대용량’ 전략을 선택했다.

정육 코너에서는 품질 상위 3%의 미국산 프라이밍급과 호주산 곡물비육 냉장 소고

기를 주력으로 안심과 등심, 토마호크, 티본 등 스테이크트 규격 상품을 실속있게 선보인다. 또한 점차 높아지는 ‘가치소비’ 트렌드에 맞춰 달걀, 돼지고기 등 동물복지 인증 수축산물 상품과 친환경 인증 이력관리 청과를 주력으로 운영한다.

맥스 상무점은 와인전문매장 보틀병커, 가전-리빙 브랜드를 콜라보한 토탈리빙매장, 직영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 품미소 등 전문점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해외소싱 등 단독상품을 통해 차별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잠실 제타플러스에서 첫 선을 보이며 오픈 한 달 만에 단일 매장 매출 20억원을 기록한 보틀병커(Bottle Bunker)가 오는 4월 추가 오픈한다. ‘여기 없으면 어디도 없다’는 컨셉의 보틀병커는 와인을 먹기 위해 매장 오픈 시간부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롯데쇼핑 제공

터 달려가는 현상을 일으키며 와인매니아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만원대 데일리 와인부터 1억원대의 초고가 와인까지

만날 수 있다. 또한 매장에서 직접 와인을 경험할 수 있는 ‘테이스팅룸’을 마련한 롯데마트 와인전문매장으로, 제타플러스

/김혜린 기자

CHARM HEALING SCALP CARE SOLUTION

탈모 포기하셨다구요? 불만족시 환불해드립니다

두피·탈모 케어 솔루션
모링가 환 | 모링가 샴푸 | 은팔사빗

NAVER | Chamhealing 모링가 샴푸 검색하세요

두피 케어 상담·체인점 상담 1588-7438

‘설 차례상’ 전통시장 26만5천원선

최고기·달걀 가격 하락
고사리 등 나물류는 올라

올해 설 차례상 구입비용은 지난해 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일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6만5,552원, 대형유통업체 35만7,188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업태별로 비교하면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25.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라지·고사리 등의 나물류는 40% 이상, 쇠고기는 20% 이상 저렴했다. 반면, 쌀은 대형유통업체가 전통시장에 비해 17% 이상 저렴했다.

성수품 대부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와 쇠고기, 달걀 등은 정부의 물량 방출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한파 영향으로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는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배(5개)는 전통시장에서 1만8,209원으로 지난 11일(1만7,565원)보다 3.7%(644원) 올랐다. 대형마트는 1만5,324원으로 같은 기간(1만7,006원)보다-9.9%(1,682원) 내렸다. 사과(5개)는 전통시장에서 1만4,112원으로 지난 11일(1만3,703원)보다 3.0%(409원) 상승했다.

달걀(10개) 가격은 전통시장 2,106원, 대형마트 2,059원으로 각각 -0.8%, -2.5% 하락했다. 쇠고기(양지·300g)도 전통시장 1만4,340원, 대형마트 2만1,318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사과·배·배추·무 등 주요 성수품을 확대 공급하고, 농산물 소비쿠폰과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권형 수급관리처장은 “올해 성수품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성수품 수급 상황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 주까지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다”며 “오는 26일 한 차례 더 성수품 구입 비용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T는 전통 및 간소화 차례상 차립비용과 더불어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선물세트 가격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농산물유통정보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애란 기자

이마트, ‘오늘 채식’ 3종 선포

이마트는 채식 간편 브랜드 ‘오늘채식’을 출시하고 20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관련 상품 3종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 (Vegan)과 가금류까지는 섭취하는 ‘폴로 베지테리언’ (Pollo-Vegetaria), 간헐적 채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 (Flexitarian)까지 3단계로 나눠 상품을 기획했다.

비건을 위해서는 구운 콩불고기와 두부면이 비건 소이 드레싱을 곁들인 ‘비건 두부면 샐러드’를, 폴로 베지테리언용으로는 닭가슴살에 참깨 드레싱과 곡물을 곁들인 ‘참깨 치킨 샐러드’를 내놨다.

플렉시테리언을 위해서는 콩불고기 샐러드 랩을 출시했다.

이마트는 이들 상품 모두에 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을 받은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한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했다.



이마트는 향후 다이어트 도시락, 샐러드랩 등으로 채식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친환경이나 동물복지 등 소비 행위에 개인 신념이나 가치를 더하는 이른바 ‘미닝 아웃’ (가치소비) 소비자가 늘고 있다”면서 “건강이나 다이어트 등을 위해 채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채식 상품 강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비스포크 큐브 Air 체험하세요” 삼성전자, 신라호텔에 공간 마련

삼성전자는 서울신라호텔 키즈 라운지에 ‘비스포크 큐브 Air’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신라호텔 키즈 라운지는 어린이용 도서와 장난감, 펜넬나무 칩 폴딩 등으로 꾸며진 테마 공간이다.

이곳은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기 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비스포크 큐브 Air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공기 질 관리를 제공하고 큐브 형태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어느 장소에나 잘 어울린다.

청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아도 10분마다 실내의 공기 질을 분석하고 오염도를 예측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 /황애란 기자